



광주 북구를 후보등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뒤 등록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민생당 최경환, 정의당 황순영, 민중당 윤민호, 무소속 노남수 후보. /김진수 기자 jeans@

코로나19 '세대 갈등'

젊은층, "걸려도 증상 가벼워" 유흥가 복적 복적
노년층, "가족들에 전파 위험" 무분별 행태 분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세대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집단유흥에 빠진 일부 젊은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의 댓글과 SNS 등을 통해 되레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비하 발언 등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두달 넘게 사회활동을 참고 견뎌온 노인층도 이 같은 일부 젊은층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감염병이 장기화하면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장기화 스트레스에 따른 각종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6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와 서구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단속하고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헌팅포차 등 51곳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일부 대형클럽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젊은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등의 '가짜뉴스'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최근 각종 조사에선 다수의 20대 감염과 코로나19가 젊은층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메드아이브'에 게재된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13일 기준 국내 7755명의 확진 환자 분석 논문만 살펴봐도, 연령별로 20대가 2238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에선 20대 감염률이 높은 것은 놓고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대구·경북 신천지 교인 중 20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도 20대의 감염비율이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문 중 코로나19 유행 양상 분석에서도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에게서 먼저 나타나고, 며칠 시차를 둔 뒤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번지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젊은층의 무분별한 행태가 부모나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자신의 가족은 물론 이웃 등에게 다량의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달 넘게 경로당 폐쇄 등 여가공간을 잃고, 사실상 집안에 자가 감금돼 있는 노년층 사이에선 최근 분노 섞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 들어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박장수(79·서구 쌍촌동)씨는 "거지질환이 있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전 국민이 합심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젊은층 사이에서도 반성언론 SNS와 코로나19 관련 언론기사 댓글을 통해 노인세대를 비하하는 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은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유행어가 급속도로 번지는 등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민생 '호남 텃밭 쟁탈전' 시작됐다

21대 총선 후보등록 ... 진보·보수 양보할 수 없는 대결
광주·전남, 민주당 탈환이나 민생당 수성이나 관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2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3·4·5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여의도 권력 재편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나아가 2022년 대선 전 초선의 성격을 띠면서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범진보와 범보수 간의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정부 지원론(야당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과 '인물론과 경쟁론'을 내세운 민생당 후보,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는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슬로건으로 공개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는 집권 여당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낸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국민에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부각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이슈로 삼고 있다. 또 '힘내라 대한민국 바뀌어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통합당은 이날 김종민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지역구 130석, 비례대표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1당 확보 및 과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은 코로나 사태와 정권 및 야당 심판론에 더해 비례정당 대결, 중도층 표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에 나섰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단 1석만 건지는 '참패'의 쓴맛을 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호남 고토 회복에 나선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 민생당 후보들은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수성에 나서고 있다. 또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들도 그동안 다져온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승리를 일궈낸다는 기세다. 광주·전남 지역 총선 변수로는 곳곳에서 불거진 민주당 과열 경선 후유증과 투표율 등이 꼽히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코로나19에 ... 한전공대 법인설립 심의 1주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 여파로 27일 예정됐던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인가 심의가 연기됐다. 26일 교육부, 한국전력, 전남도에 따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회의가 1주일 연기됐다. 교육

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 일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선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대학 설립을 위한 자본조달 계획, 공사 추진 계획 등이 모두 보완됐으므로 다음 심사에서 낙관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30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20일 1차 심사, 올 1월 31일 2차 심사에서 연거푸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3차 심사는 대학 설립을 위한 자본조달 계획 등 준비되지 않아 연기된 바 있다. 한전공대 법인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공대 설립은 학교법인과 수개월 내 선임될 초대 총장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도심 오토바이 굉음 안잡나 못잡나 ▶7면
-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18면
- KIA 고졸 신인 유격수 박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언론인 개인 소장품, 遺品 기증 캠페인

전·현직 언론인의 역사를 기록하여, 저널리즘의 가치와 그 숭고한 길을 되짚어 다시 세우는 상징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증기간 : 2020년 3월 2일~4월 15일 ☑ 기증품목 : 물품, 자료, 사진, 그림 등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언론관련 소장품

☑ 기증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02-2001-7760) ※ 4월 말 개관 예정인 '미디어 교육원'에 상설 전시 예정